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무안군 망운면'...통합이전 시동

국방부 공식 발표...첫 법적절차 돌입
6자협의체 가동 후 중요한 진전 이뤄
1조원 지원방안 등 구체화 논의 착수

국방부가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통합이전'에 시동을 걸었다.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은 군공항 이전 법적 절차의 첫 단계다. 2013년 광주시의 이전 건의 이후 공전을 거듭하던 군공항 이전사업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으로 분개도에 오른 만큼 후속 절차 또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 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공식 선정했다. 정확한 위치·면적은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기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한다. 담보 상태에 놓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해 6월25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대통령실 주도 6자 TF(재경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가

구성되면서 무안으로의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어 지난해 12월17일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을 골자로 한 6자 TF 공동합의문 체결 이후 속도가 붙었다. 전남도는 이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위한 정부 중재안 마련과 무안군 지역발전사업 비전 제시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에 노력했다. 이어 실질적 6자 합의 협상 테이블을 이끌어내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 국방부 또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상 필수적인 행정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남 무안 주민을 대상으로 '광주 군공항 이

전' 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역 목소리 반영에 공을 들였다. 광주시도 무안 주민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제안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경수 광주시 군공항건설단장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은 단순한 공항 이전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오는 7월1일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 서남권 균형발전을 함께 견인하는 상생 프로젝트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무안 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비후보지 선정 이후 진행될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등 모든 과정에서 무안군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일방적 추진이 아닌 소통과 상생을 통한 새로운 무안군의 비전을 군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광주시·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무안 지역 주민들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기반으로 협력의체를 구성,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차량 5·2부제 참여하세요” 중동발 석유 위기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캠페인이 2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려 북구청 민생경제과 직원들이 운전자에게 에너지 절약 홍보 전단지들을 나눠주고 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 격상에 따른 차량 5·2부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조영권 기자

道 '숙박세일페스타' 할인쿠폰 2만2천장 쏜다

8-30일 선착순·연박 최대 7만원 할인
가을편에도 1만8천명 추가 발급 계획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숙박세일페스타 봄편'에 참여해 오는 8월부터 30일까지 지역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숙박세일페스타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여행 수요 확대를 위한 전국 단위 숙박 할인 지원사업으로 전남도는 올해 총 2만2천장의 할인쿠폰을 확보해 봄편·가을편 할인행사를 진

행한다. 숙박세일페스타 봄편은 지역 호텔, 콘도, 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객 4천여명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배포한다. 할인 혜택은 1박 기준 7만원 이상 예약 시 3만원, 7만원 미만 예약 시 2만원이 적용되며, 연박(2박)의 경우 최대 7만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할인쿠폰은 여기어때, NOL, 11번가, G마켓 등 7개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1인 1매를 발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공식 누리집(kstod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봄편에 이어 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9-10월 '가을편 숙박세일페스타'를 통해 약 1만8천명에게 할인쿠폰을 추가 발급할 계획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숙박세일페스타가 관광객의 여행 경비 절감과 지역 숙박업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봄꽃놀이와 다양한 즐길거리,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전남 섬 방문의 해 등 이벤트가 가득한 전남에서 특별한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中企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지원

최대 200만원...선착순 70명 모집

광주시는 2일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전남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과 연계해 광주시가 대체인력 근로자 본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체휴직 근로자가 취업 후 3개월 근무 시 1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근무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을 받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채용된 대체인력 중 올해 1월1일 이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일정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근로자 70여명을 모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지원금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받은 결과 통지서 등을 구비해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다. /변은진 기자

'제7기 전남도 해외유학생' 28일까지 모집

명문대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지원

전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일 "글로벌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세계 명문대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제7기 전남도 해외유학생'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이나 부모가 2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전남지역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이다. 전남도 전략산업 관련 이공계열 전공자로 학업 성적과 외국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il.e.kr)에서 접수하며 서류와 역량평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특히 전공 분야 전문성과 발전 잠재력, 지역 공헌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외

에서 역량을 쌓은 인재가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 대형산불 예방 총력
전남도가 5일 청명과 6일 한식을 앞두고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세워 총력 대응에 나선다. 청명·한식 전후로는 성묘객과 산중객이 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부주의만으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도는 실·국장 중심의 행정지원담당관제를 활용해 산불 취약지역 중심 단속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산불 연접 마을과 전담 등 산불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영농 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김재정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

